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07월 0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6호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廻向) 및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법어



종령 법공 대종사

진언밀교 총지중의 승단 스승님과 교도 여러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수희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대원성취의 빛이 두루 비취지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큰 해탈을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49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라를 위한 불공과 함께 4대 은혜 보은불공과 개개인의 서원 성취를 위하여 정진해 오신 승단과 교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공이 모두가 소중하고, 그 소중한 불공으로 인하여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공덕이 미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정진불공은 더욱 소중하고 지중한 불공입니다.

불공(佛供)이란 좁혀서 말씀드리면 불보살님께 공양(供養)을 올리는 불교의식과 의례를 말합니다. 이를 더욱 넓게 펼쳐서 말씀드리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행하는 진언연승이 바로 불공인 것입니다. 불공은 짧은 기간 보다 장기간 행함으로써 복덕이 더욱 증상하고, 지혜가 일어나며, 이를 지속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정한 생활 속에서 일체 서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49일 동안 정진하셨던 진호국가불공은 참으로 그 공덕이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불공에 착한 복이 수승함이 방생 한 번 함과 같고, 두 번 불공하게 되면 일체 죄업을 소멸하고, 백 번을 불공하면 욕도를 벗어나서 관음보살 친견하여 지혜 총명하여져서 일체 법설 보는 바를 모르는 것 없게 되고 사대 모든 병과 고통이 목숨을 해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언연승과 불공이 수승하고 그 공덕이 장대(長大)하므로 총지중의 진언 수행자 모두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 더욱 정진하는 자세를 지녀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이르시며 유언하신 바,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진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변함없이 매일 매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49일 불공은 매일하는 정진과 자성 일불공, 월초불공과 달리 더욱 특별한 정진불공입니다. 다생겁을 통해 미처 다 갚지 못한 4대 은혜를 비롯한 숙업(宿業)을 49일 동안 몸과 입과 뜻으로 항상 바르고 참된 생활과 불공을 통해 업을 닦는 불공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일 불공의 공덕이 크고 장엄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공을 회향하는 날입니다. 49일간의 불공 공덕이 일체중생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불공과 생활을 잘 점검해서 허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월초불공에서 꼭 채울 수 있도록 거듭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보살님, 그리고 각자님들의 정진원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일체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훎.

총기 48년 7월 16일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부산역 중심 법성사, 포교 신화 새로 쓴다

신축 사원 7월 완공, 지하 1층, 지상 14층, 56세대 규모

법성사(주교:법선 정사)가 2년 여 기간의 사원 신축 공사를 마치고 오는 7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부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인 법성사는 부산 도심 교화 도량의 일번지로 거듭나, 총지중 포교 신화를 새로 쓴다는 각오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2008년도부터 부산역에서 옛 북항까지 이어지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유동인구의 유입과 지역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포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2017년 8월 9일 총지중 중앙총의회에서 노후화 된 건물 신축을 결의한 이래 2년 만에 도심형 수행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신축 건물은 부산역 인근 교

통중심지의 지리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심 사원 성격에 맞게 설계를 하였고, 프리미엄급 옵션으로 시공되었다. 특히 부산항바다와 남항대교 조망권을 확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부산 앞 바다까지 펼쳐지게 되었다.

2층에 서원당, 옥상에는 하늘 정원 도심 속 휴양지 청소년 교화도량, 관광객 위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

법성사가 들어설 법성빌딩(가칭)은 아파트 23세대, 오피스텔 33호, 업무 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이며, 서원당은 2층에 마련된다. 법성빌딩에 입주하면, 매일 불공정진 할 수 있는 서원당을 내 집 안에 두는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입주된 전용 세탁실, 헬스장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며, 옥상에는 하늘 정원을 꾸며, 도심 속 숲속 휴양을 즐길 수 있다.

또 법성사가 위치한 초량동은 부산의 우수 학교인 부산중학교와 부

산고등학교가 있어, 청소년들의 교화 도량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법성사 내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만나고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근 관광명소에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안내하여, 한국 전통밀교 사원의 문화체험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가까운 초량시장과 인근의 대형 마트 상권, 국내 최대 백화점이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법성사에 들러 불교를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 방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성사 주교 법선 정사는 "부산 포교의 일번지로 거듭날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성빌딩 분양 현황과 맞물려 서원당 가지불사가 봉행될 수밖에 없다."며 총지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2면으로 계속)

원봉 대정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

6월 25일, 포항 수인사에서 봉행



원봉 대정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6월 25일 포항 수인사(주교: 법일 정사)에서 봉행되었다. 수인사 주교 법일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추선 법회는 종령, 통리원장 인선정사, 전국스승, 유가족 순으로 헌화와 훈향정공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유가족 대표의 추선사에 이어 참회, 오대서원, 무상계,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외 추복법문, 정각사 합창단의 추모 음성공양으로 여법하게 마무리 되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원봉정사님을 가슴 속에 묻고, 먼 길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종령 예하, 스승 및 교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원봉 대정사는 1932년에 태어나 1981년 총지중 대법사로 임명하여 승천사, 국광사, 수인사, 실보사 주교를 맡아 수행하였다. 1985년부터 총의회 의원, 총무부장, 사감원장, 대구경북교구장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37년간 교화스승으로 몸담았으며, 경주 승천사에서 임직에 들었다.

중/조/법/어

부처님의 가지원력 조상불이 입계하여 자손만대 드리우게 추복불사 할지니라

안내

총지중보 타이틀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문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서울경인교구

일시 | 총기 48년(2019) 7월 16일(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딱따구리 청소년수련원 (경기도 양주시 현석로 313-44)
전화 | 02-3493-4034~5

부산경남교구

일시 | 총기 48년(2019) 7월 16일(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경남 사천 남일대 리조트 (경남 사천시 남일대길 70)
전화 | 055-832-9800

충청전라교구

일시 | 총기 48년(2019) 7월 16일(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부안 신재생에너지컨벤션센터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10)
전화 | 063-580-1400

대구경북교구

일시 | 총기 48년(2019) 7월 16일(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각사원별로 진행

(가칭)법성빌딩 주거용 시설별 타입

아파트

TYPE A



TYPE B



오피스텔

TYPE A



TYPE B



TYPE C



<1면에서 이어짐>

법성사는 총기 7년(1978) 2월 1일에 개설한 자재 서원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산 남구 대연2동에서 3층 건물을 임대해 설단 불사를 봉행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하정 정사가 자재서원당의

초대주교를 맡았다. 법성사 주교 대자행 전수는 총기 10년(1981) 4월에 지금의 자리인 동구 초량동 422-3번지 대지 90평에 목조 기와집 2층 1동의 김상용 안과병원 건물을 매입, 이설하며 법성사로 개칭하였다. 이후 총기 12년(1983) 4월 지하 1

층 지상 2층의 연건평 156평으로 사원을 증, 개축하였다. 신축된 법성사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현 위치에 대지면적 690㎡ 건축면적 501㎡ 연면적 5893.6㎡에 주거복합건물로 재건되었다.

<박재원 기자>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전국 일제히 11시 봉행, 장소 기억하세요!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이 오는 7월 15일 회향한다. 아울러 다음날인 7월 16일 전국 사원에서는 일제히 서원당 밖으로 자리를 옮겨 11시부터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

로 가야할까?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장소와 일정을 미리 알고 나서보자. 혹시 일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 있다면, 역시 놓치지 말고 따라가보자.

련원에서 열린다. 수련원은 서울시청 기준 50분 거리로, 잣나무, 소나무로 우거진 7만 여평의 휴향림지대로 도심과 다른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경기도 양주시 현석로 313-44/전화 02-3493-4034~5 △부산경남교구는 경남 사천 남일대 리조트에서 한다. 남일대 해수욕장과 코끼리 바위, 산책로 등 빼어난 자연환경이 특징이다. 경남 사천시 남일대길 70/전화 055-832-9800 △충청전교구는 부안 신재생에너지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신재생에너지컨벤션센터는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마파크 옆으로 변산 앞바다가 펼쳐져 있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10/전화063-580-1400△대구경북교구는 각 사원별로 진행한다. 우리 사원이 어디로 가는 지 꼭 확인 후 찾아가 보자.

강남구립 초록어린이집 새 원장 공모

최종 5명 선발, 6월 28일 프리젠테이션 심사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초록어린이집의 새로운 원장을 뽑는 프리젠테이션 심사가 지난 6월 28일 총지종 반야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새 원장 공모에는 총 29명의 지원자 중 최종 5명이 선발되어, 어린이집 운

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받았다. 이날 선발 심사에는 총무부장 원당 정사, 재무부장 덕광 정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김태원 계장이 참여하였다.

이번에 참여한 5명의 원장 후보 중, 종단이 삼고 있는 규정에 의거해 7월 중 1명을 최종 선발 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일 초록어린이집 원장은 오는 8월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初發心自警言文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화령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 (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 [發心修行章] · 자경문 [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 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7000원 / 10권이상)
문의전화 | 02-508-8933

제19대 집행부 이웃 종단과 교류, 협력에 빠른 행보

조계종 대관음사, 신노엔 부산, 천태종 관문사 잇단 방문



찰 안 납골당은 장엄한 법당으로 꾸며져,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축원하고 있다. 조계종 도심 포교 모범 사찰을 통해 일찍이 도심 포교의 산실격인 총지종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방문으로 보인다.

이어 집행부는 다음날인 6월 13일 두달 전 통리원을 방문한 신노엔 아츠시 마츠나가 총본부 국제부장의 방문에 화답의 의미로 재단법인 신노엔(대표 기사다가츠오·이하 신노엔) 부산정사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통리원장 인선정사와 집행부, 도현 정사(정각사 주교)가 동행했다.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수행하는 일본의 불교 종단인 신노엔은 최근 부산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부산 연제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전국불교청년대회 후원금을 대한불교 청년회에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와 후원협약을 맺은 후 아동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등 국경을 넘어서는 보시행을 통해 한국

제19대 통리원(통리원장:인선 정사) 집행부가 이웃 종단과의 교류와 협력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지 찾아가는 방문 행정이 아니라, 이웃 종단의 운영 시스템과 포교 방법 등에 방점을 둔 일리 있는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_배우고 때때로 익히다)’ 관점의 행보다. 아울러 지역 불교 연대의 끈을 단단히 묶는 단초로 방문 종단 인근의 총지종 사원 주교를 동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19대 집행부는 대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우학 스님)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범상 정사(간화사 주교)와 도현 정사(정각사 주교), 범일 정사(수인사 주교)가 동행했다.

이날 대관음사 무일복지재단 이사장 일문스님은 통리원 스승들을 맞이하여, 대관음사에 대한 소개와 운영에 대하여 소개했다. 대관음사는 관세음보살 도량으로 다른 사찰과 다르게 도심 중앙에 포교당을 설립하여 매년 새로운 포교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곳이다. 전국 최대 최첨단의 시설,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하는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무일학원,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노인 전문요양병원, 노인치매학교, 공동생활가정 국제 NGO 사업단체, 의료법인 무일의료재단 등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활동과 종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사



에서의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노엔 부산정사에서는 정경 국원과 일본에서 파견된 미야가와 노부유키 포교사를 만나 정사 안내를 받은 후 환담을 나눴다. 한국불교 속으로 성큼 다가온 신노엔의 다각적인 포교 방법과 추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지난 6월 17일에는 총지사와 이웃한 대한불교 천태종 직할 사찰인 관문사(주지:월장 스님)를 향했다. 서울 강남의 요지인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관문사는



천태법음의 요람이자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통한다. 1993년 기공식을 갖고 5년여의 공사를 거쳐 1998년 10월 낙성을 하였는데, 아직도 신도를 맞이하기 위한 새 단장이 한창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와 전통적인 불교건축양식을 병행하여 시공되었다. 건물 내부는 첨단의 설비를 갖춰 다양한 국내외 문화, 학술, 종교의식 등을 치루고 있다. 월장스님은 “현재 일요 법회에는 천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불자들이 배우고 익혀서, 익혀서 실천하며, 실천 속에 정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사찰운영의 방편을 밝혔다.

금번 방문 중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총지종이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웃 종단 하물며, 다른 종교의 변화 발전 과정 등을 배우고 연구해서, 종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종단이 변화 발전하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 19대 집행부가 제시한 중책 과제 중에는 신규 교회지 개척 및 사원 재정비, 승직자 심화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과 같은 이웃 종단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겼는지, 또 어떤 내용이 중책 과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지 기대해 본다.

<박재원 기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45주기 열반대재 봉행 통리원장 인선정사 등 사부대중 2만 여명 추모

천태종(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총지종 인선 통리원장을 비롯한 불교지도자, 지자체 관계자, 천태불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45주기 열반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열반대재는 도용 종정예하와 내빈들의 헌향·헌다·헌화에 이어 추모사, 추도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종단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열반 45주기를 기리는 이 법석은 대조사님의 크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청정자성의 본래면목을 증득하고 전법도생의 광활한 원력을 증대해 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

월원각대조사께서는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수많은 중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천태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며 “천태종은 대조사님의 가르침과 불조의 해명을 이어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쳐나가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우성 총무실장 대독),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추도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님의 열반을 추모한 뒤 “대조사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다.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이들이 행복한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법요식 후 오후 1시 30분에는 적멸궁에서 적멸공제를 봉행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제16회 대원상 후보 공모 출가, 재가 부문,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에서는 2019년 제16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은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제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2003년 제정된 대원상은 출가 부문, 재가 부문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특히 재가 부문은 3인

(문:02)719-2606, 719-1855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호신다라니(차량형)금색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차량형)은색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차량형)엔틱
길이 18cm
₩ 20,000



호신다라니(장엄형)금색
길이 30cm
₩ 50,000



호신다라니(장엄형)은색
길이 30cm
₩ 50,000



호신다라니(장엄형)엔틱
길이 30cm
₩ 50,000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② 효친(孝親)편 _ 수행(修行)

⑥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하고 어버이에 불효하면 자식 또한 불효한다. 자부비모(慈父悲母) 은덕으로 일체남녀 안락이라. 자부은혜산과 같고 비모은혜 바다 같다. 대지 비록 무겁지만 부모은혜 더 중하며, 수미산이 높다하나 부모은혜 더 높으며, 자식위한 일념생각 태풍보다 더 빠르다. 덕에 배반 하지 말라. 자식들은 그 말끝에 바람보다 더 빠르게 고난함을 곧 받는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안색순케 받들어서 비모 뜻을 좇게 되면 일체재난 소멸되고, 제천이다 응호하여 항상 안락 하게 된다.(대승보은심지관경大乘報恩心地觀經)

유교에서는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자비롭다는 말입니다. 적절하게 조화가 되었을 때 이상적인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것에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자(慈)이고, 고통을 덜어주고 근본적으로 그 근심과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어 주는 것을 비(悲)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조님께서는 함께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부비모(慈父悲母)'라고 설하셨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부비모'의 큰 뜻을 잘 받들고, '자부비모'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를 받으려면 먼저 행해야 합니다.

⑦ 네 가지 큰 은혜
'대승본생심지관경'에 부처님께서 오백 장자에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 있는 곳을 분별하여 말하리라.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에 네 가지가 있으니, 부모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와 국가의 은혜와 삼보의 은혜이다. 이 네 가지 은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입고 있는 것이다." 종조님께서도 이를 창종 이념의 본령(本領)으로 삼고, 사대 은혜, 즉 부모와 나라, 중생과 삼보의 은혜를 갖는 사대 불공의 중요성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1)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 한다. 내가 부모 큰 은혜를 배반하고 모르는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어찌 효순하겠으며, 은애중생 내가 먼저 요악하게 할 것이니, 중생들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모르는데, 어찌하여 사회에서 나를 도와 주겠느냐.

법계는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과 인연에 의해 이루어져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인연 속에 있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남을 먼저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2) 국민이 된 의무로서 나라 일을 도울지니, 내가 사는 이 나라의 큰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모든 천왕들이 나를 도와주겠으며, 다섯 가지 지혜 항상 밝혀 육행실천 할 것이니, 내가 우치 사건으로 삼보은혜 모르는데, 어찌 범왕 제석들과 법계호법 성중들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인류사회 생활에서 신분귀천 물론하고 다 이러한 것이니라.

다섯 가지 지혜로 육행실천, 삼보은혜 깨달아야 실천행은 '반포법시(頒布法施)', '보은시(報恩施)'

법계에 작용하고 있는 호법신인들의 도움은 다라니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법계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하면 됩니다. 특히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불교를 믿는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은 더욱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종조님께서는 육행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바라밀을 통해서 육행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치는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치입니다.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삼보의 은혜를 알고, 잘 받들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3) 이는 삼세 통하여서 어긋남이 없음을 지며, 지방세계 배뿔어도 배반하지 못할지니, 누구나 다 수행하여 결과대중 하여보면, 실지 증거 나타나서 곧 깨닫게 될지니라.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지방세계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말하는 공간적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현재는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몸도 혼자 아닙니다. 눈, 코, 입이 모여져 내가 되고, 조적이 모여 육체가 됩니다. 하나로 보면 시간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이 논리가, 이 법이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나 수행하면 깨쳐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밑에 고행하고, 군의 의무 난행하면, 자기 복이 많아지고 출세고난 극복하며, 부모덕에 호강하고 군의 훈련 기피하면, 자기 복이 없어지고, 세상에 성공 없다. 부모를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어렵지만, 부모 은혜만 입고, 부모덕에 호강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이 나, 나라의 은혜를 입고 병역을 회피 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에 제가 어찌 난행고행 복을 알라. 빈부간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인정으로 양육 말고, 지성으로 기를지라, 오직 다만 정으로서

사랑하고 기른다면, 옳은 자식 못 만들고, 결국 외도 걷게 한다. 그러므로 기를 때는 부모에게 책임 있다. 외도에서 병이 오고, 외도에서 우한 오며, 외도에서 지조 없고, 외도에서 불평 온다.

맛에는 맵고, 쓰고, 짜고, 시고, 달고 다섯 가지 맛이 있습니다. 중국의 자녀교육에는 '오향미 육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운 맛, 쓴 맛부터 먹이고, 맨 나중에 단 맛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부터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노벨상의 반 이상을 수상한 유대인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가 '오늘 무슨 질문을 하였느냐, 그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었느냐, 내일은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묻는답니다. 종조님께서도 자식을 너무 많은 정으로 키우지 말고, 귀한 자식일수록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서 균형 있게 키우라는 말씀이십니다.

진호국가불공은 나라를 위한 불공으로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공인 뿐만 아니라 '사대은혜(四大恩惠)'를 갖는 불공입니다. 이번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원만 회향하시고, 은혜 갖는 실천행으로써 '반포법시(頒布法施)'와 '보은시(報恩施)'를 함께 행하여, 지혜가 증장하고, 일체서원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비교 좀 하고 살면 안되나?

비교를 잘 못하면 불행하지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어 선지식들의 행을 본받으며 향상일로의 경책을 삼아

"부러우면 지는 거야."라는 말을 흔히 듣곤 한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듯이 남과 비교해 자존감을 잃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아예 비교하지 말고 살라고 권하기도 한다.

비교는 근본적으로 분별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분별의식을 넘어서야만 비교의식도 극복될 수 있다. 무분별지를 성취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예컨대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보통 우리의 현실인데 어쩌란 말인가.

보통 우리의 삶 자체는 차이에 대한 인식, 분별에 기초해 있다. 뱃속에서부터 분별을 익히며 태어나서도 잘 분별해야만 세상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다. 즉 인생 자체가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는 유지하기 불가능한데, 남과 비교하지 말라거나 분별의식을 넘어서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이는 비교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탓에 고통을 겪는 현실을 지적한 데서 비롯된 말이 아닐까. 똑같이 내가 아닌 남이 땅을 산 것은 같은데 그 남이 사촌이면 배가 아픈 이유는 뭘까, 짚어봐야 할 것이다. 남을 미워하게 될 때도 전혀 관계가 없는 행인을 미워하는 일은 없고 그 남이 부인이나 남편일 때 미워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촌이든 부인 혹은 남편이든 뭐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적 정서적으로 어떠한 인식과 감정을 쌓아왔고 그것이 늘 잠재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한 잠재의식에 기초해서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미워한다는 감정이 형성될 수 있는 원인처럼 무엇인가의 분별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비교를 아예 하지 말라기보다는 제대로 비교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비교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마침내 스스로 자유롭게 되기 위한 것이지 비교를 잘

못하거나 그에 집착 내지 구속되어 불편하게 되려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제대로 비교를 할 때 그에 따른 결과에도 승복하고 그에 얽매이지도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싶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비교하면서 불행할 수도 있고 비교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비교를 잘 못하면 불행하고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자기가 가진 것은 안 보고, 못 가진 것만 본다거나 남이 가진 것만 보고 못 가진 것을 안 보면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남과 비교해서 남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있음을 보게 되면 이만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음을 본다면 이를 보완하려 노력하고, 또 남이 갖지 못한 자기의 훌륭한 점은 집중 육성해 나간다면 어떨까.

비교를 잘 못하는데서 중도적인 시각을 잃게 되고 잘하는 데서 중도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다. 예컨대 키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호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비롯한다. 키가 큰 것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구의 서양인이 비좁은 이코노미석에서 몇 시간씩 고생하는 걸 볼 때 애처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스스로는 편히 갈 수 있음에 작은 행복감이 들기도 한다.

제대로 된 비교를 한 듯해도 그에 머물면 소승에 머물 우려가 있다. 비교의 결과를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는 데서 현재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된다. 비교 내지는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그것을 넘어서는 자비행을 할 때 대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하려면 불보살님이나 선지식들의 행을 보면서 스스로의 향상일로, 불방일 정진에 경책으로 삼으면 어떨까. 이는 단순한 비교에 매이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정진의 노력이어서 차원을 달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김봉래(BBS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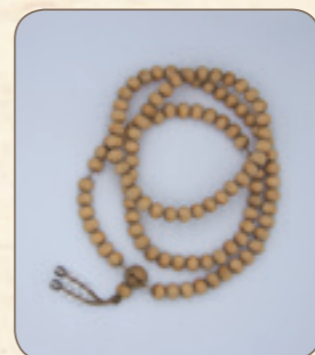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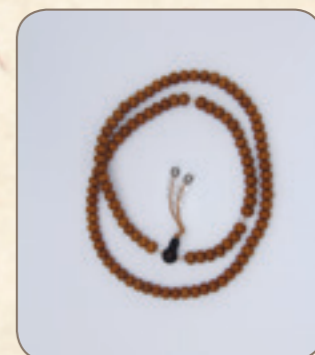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진보리수 108염주 ₩ 10,000



발교경전 읽기 25

원당정사

준제를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Cundi'라고 하며 청정의 의미로 자성의 청정함을 찬탄하는 명칭이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뜻하는 것으로 7구지 부처님도 이 자성의 청정함을 깨달았으며, 중생들도 이 자성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생들도 자성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준제관음을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킨 어머니, 즉 '7구지불모'라고 준제관음의 성격을 나타내서 준제다라니와 준제관음을 동일시하는 관음신앙의 밀교적 성격을 알 수 있다. 준제다라니의 진언명은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라고 하며, 진언구는 '나무 싹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라고 표기하며, 준제다라니의 산스크리트어는 'namah saptānāmsamyak-sambuddhakotīnām tad-yathā om calā-cala cundī

svāhā'이다. 여기에서 '나무 싹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은 전제로 다라니를 수식하는 말에 해당되며, 그 뜻은 "7(또는 77)천만의 정등정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는 준제다라니를 설하고 계신 부처님을 '칠구지불' 또는 '칠구지준제여래' 또는 '칠십칠구지불'이라고 표현하듯이 "7(또는 77)구지불께 귀의합니다."라고 번역한다.

여기에서 '칠구지'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 부처님의 명칭이 아니라 '수많은'의 의미를 가지는 수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야타'는 '이와 같이', '이른바', '다시 말하건대'라고 번역한다. 이를 진언구(眞言句)와 합치면 "칠구지불께 귀의합니다." 이른바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육자대명다라니와 함께 77구지의 부처님께서 준제다라니를 설할 때에 관자재보살의 몸에서 상서로운 신성장엄의 모습이

나타남을 설하여 육자대명다라니와 함께 준제다라니를 지송함으로써 상승공덕이 일어남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준제다라니의 지송공덕을 찬탄하는 다른 경전의 내용을 알아보면,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는 준제다라니와 관련된 의계 속에서 준제다라니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찬탄하고 있다.

준제는 크나큰 공덕 무더기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의 모든 대 재난이
능히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니
하늘이나 인간이나
그 복 받음이 부처님과 같으며
이 여의주를 만났으니
마땅히 비할 바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라고 준제다라니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침범하지 못하고 준제다라니는 여의주와 같아서 능히 부처님과 같은 복을 얻어 결단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준제다라니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다.



연방이로 16

법상정사

노년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만큼 살았으니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겸박한 태도는 더욱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이 인생관의 존재 여부가 삶의 질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는다. 이제까지는 세상이 정해 놓은 길, 주변에서 원하는 길을 따라 걸어왔다면, 이제부터 남은 삶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떻게 걸어갈지 오로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의 연륜은 미움과 절망까지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살면 이해도, 지식도, 사리 분별력도, 자신의 나이만큼 쌓인다. 그런 것들이 쌓여 후덕한 인품이 완성된다. 노년이란, 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급속히 자리 잡게 되고 그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젊은 날의 만용조차 동글동글해지고 인간을 보는 눈은

사람답게 죽는 것_웰다잉(Welld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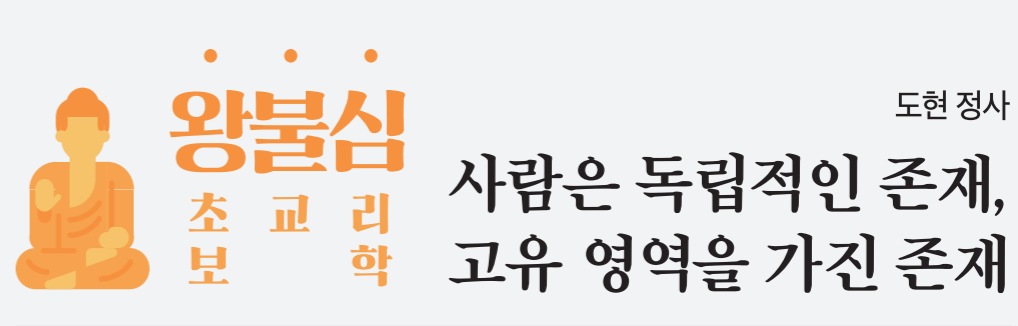
파스해 진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 자신에게 견고한 자갈을 물리고 삶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시간은 인간에게 성실할 것을 요구한다. 잉여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노력 없는 시간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노년에게 시간은 두렵고 잔혹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워야 한

그것은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주변의 사람도, 재물도, 그리고 의욕도, 어느 틈엔가 자신도 모른 사이에 떠나간다. 이것이 노년의 숙명이다. 인간은 조금씩 비우다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세상을 뜨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을 의지하기 보다는 신이나 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삶의 마무리

다. 미완성에 감사해야 한다. 사람답게 죽기(웰다잉)위해 '진격' 보다는 '철수'를 준비해야 한다. 물러설 때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한다. 자신의 자리와 삶에 대한 두터운 욕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집착이란 보이지 않는 일종의 병이다. 그래서 자신과 관계있는 조직에, 일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고 충고한다. 애착은 곧 권력과 재화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 힘을 주위에 과시하려 하게 되며 마침내 추한 완고함의 뒷에 걸려들게 만든다. 오래 살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비움'과 '내려놓기'를 준비하라.

처님의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야 한다. 부처님의 진리와 가까이 하면 정신연령과 영적연령은 더욱 신선해진다. 이것이 '웰다잉'의 깊은 뜻이다. 후반전의 인생은 여생이 아니라, 후반생이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향해 새 인생이 시작되는 때다. 행복한 노년은 무엇인가? 늙고(웰에이징), 후회 없이 존엄하고 사람답게 죽는 것(웰다잉)으로 마무리하는 삶'이다!



도현 정사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 고유 영역을 가진 존재

사람은 자기만의 감정, 성격, 생각, 그리고 경험 등을 지니고 각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개인의 특질을 가진다. 성격과 기질도 다르다. 일관성 쌍둥이도 그렇다. 이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절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내가 없다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 존재 했던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존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탄생하시고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는 계승을 설 하신지도 모른다. 물론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쁜 외모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주위의 평판도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이야기 할 때쯤 남자의 어머니가 그들의 결혼을 반대 했다. 자기 아들과 같은 직업의 의사며 느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얼핏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 같이 보이지만 그는 자신과 어머니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녀가 아들의 여자 친구에 대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의사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한다, 안한다는 결정은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 경계 인식은 상대 영역의 인정과 존중의 의미

우리들은 유일한 존재이며 개별적인 존재임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은 나와 상대 사이에 돌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사이의 경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즉, 국경선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렵다. 경계를 인지하여야 타인이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절히 지키고 나도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들 주위를 살펴보면 자신의 경계가 뚫려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모르거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내가 상대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 마구 휘저어 상대를 힘들고 아프게 해 놓는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를 사랑해서 그랬는데 자신의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등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고 모든 잘못은 상대에게 있다고 도리어 주장하는 경우도 흔히 본다.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잘 인식 하지 못해서이다. 경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상대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의사인 미혼남성 A씨는 학창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적당한 키에 예

인간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현재 자기가 처해진 상황과 주변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적응해 가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다.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 독립적이고 온전한 심리적 체계와 경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가 지금 이 감정으로 평생을 살 것이라고 확정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들의 여자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녀가 아들의 아내가 되고 자신의 며느리가 되고 내 손자를 낳은 어미가 되면 그 관계에 맞추어 사람의 마음은 또 달라진다. 적응은 인간의 본능이다. 혹은 적응을 못해서 계속 불행하다면 그것 또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며느리에 대한 탐탁지 않은 그녀의 감정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은 그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아들의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그의 어머니 영역안의 일이다. 물론 아들이 어머니 영역 밖에서 도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들의 책임이거나 아들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경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감정은 본인이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때 그 시절

단향사 건물 신축
총기 22년(1993년) 7월 20일
소재지: 경남 충무 북신동 3-11
신축 건물 면적: 철골조 2층 주택 118.8㎡

수재의연금
총기 25년(1996년) 7월 31일
수재의연금 기탁
기탁처: btn
기탁금: 5,000,000원

서울경인교구 호국안민기원법회
총기 30년(2001년) 7월 16일
장소: 단종왕릉, 청령포(단종유배지), 고씨동굴
참가인원: 약 200여명
차량: 버스 7대, 봉고 1대, 승용차 1대.

종단협, 사회복지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현판식
총기 25년(1996년) 7월 18일
참석: 승단 전 스승님의 교도
초청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 외
현판 기념 법회: 14:00 서원당
현판식: 14:50, 법장원 건물 현판
세미나: 15:00, 3층 회관
주제: 불교 사회복지사업의 전망과 방향
발표자: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제 6회 여름 어린이 수련대회 개최
일시: 총기 29년(2000년) 7월 24일~26일(2박 3일간)
장소: 충북괴산 수련원
참가인원: 어린이 62명, 지도교사 22명, 자원봉사 10명
수련대회 주제: 너 나 우리 - 하나되는 총지인

동해중학교 수련대회
총기 30년(2001년) 7월 25일~27일(2박3일간)
행사 주제: 즐거운 총지종 · 함께하는 총지종
참가인원: 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 7명
인솔교사 6명

종단협, 캄보디아 일대서 한국 전통문화 교류

핀셈스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함께 하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원행스님, 이하 종단협)가 한국전통문화 남방교류사업(단장: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스님)으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다. 이번 교류사업에는 총지중을 비롯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삼론종, 원융종, 미륵종, 대각종, 일불선교종, 화엄종 등 회원종단과 불광미디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총 32명의 스님과 재가 종무원들이 동참했다.

이번 일정 첫날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순례와 씨엠립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자 왕실 고문스님인 핀셈스님이 주지로서 있는 왓보사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핀셈스님은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며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서원했다.

교류사업단 단장 지민스님은 종단협에서 마련한 선물을 핀셈 주지스님에게 증정하며 “한국불교와 캄보디아 불교가 서로 교류하며,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함께 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교류사업단은 왓보사원이 운영 중인 초, 중, 고등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방문 둘째 날에는 오전 8시부터 로터스월드 씨엠립지부(지부장 선문스님) 아동센터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약 200여명과 함께하는 미니 운동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 개최식에서 교류사업단 단장 지민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곳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활동을 위해 보육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 만들어 주고자 오전에는 함께 체육대회도 즐기고, 오후에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체험도 준비했습니다.”며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만남이 바로 부처님이 지어주신 인연이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자고 했다.

로터스월드 씨엠립 지부장 선문스님은 환영의 말에서 “오늘 파란 하늘과 푸른 잔디가 우

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신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와 오후에 있을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며 행사를 마친 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랐다.



운동회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바구니 공 놀기를 시작으로 포대자루 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한국전통 투호게임 등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이 종단협이 준비한 한국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인 단주 만들기, 연꽃 겹 등 만들기, 예코백 그림그리기, 한국문화재 다보탑, 석가탑, 거북선 모형 만들기를 함께 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교육과정 예, 체능 교육이 없는 환경에서, 이번 행사가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

<자료 제공=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통리원 고지연 교무

차이를 뛰어넘는 따뜻함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제 뇌리에 아직 떠나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느 곳에서나 마주칠 수 있었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입니다.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이런저런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종단의 스님들과 종무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전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행동이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매순간 눈이 마주치면 미소로 화답하여주시는 종단의 스님들과 참여자들 덕분에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애가 피어 올랐습니다. 아울러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왕실고문스님인 핀셈스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전하여 주신 따뜻함은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불교문화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앙코르와트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로터스월드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교류를 한 시간입니다. 예코백에 제 이름을 써넣어 바꿔 갖자는 아이와, 계속 열을 따라다니던 커다랗고 맑은 눈을 지닌 리사라는 아

이를 보며, 제 마음이 내내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탁한 연못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고 오히려 물을 정화시킨다는 연꽃, '로터스'와 같이 아이들이 힘차게 자라나기를 희망하며 저도 후원자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거리를 다니는 동안 가장 많이 마주한 이들의 모습은 생계를 위해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한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것처럼 또 다른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식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서 동료들과 마주했던 캄보디아의 밤하늘과, 뮤지엄을 방문하였을 때 보여주시는 스님들의 친근한 모습을, 야시장을 방문하여 소소한 간식들을 구입하며 한국에 있는 서로의 동료들을 떠올리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미숙한 저에게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차이를 뛰어넘는 따뜻함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원장님과 스승님들, 과장님과 종무실 식구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각사 제정이 교무

언어는 달라도 한마음 한뜻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전통문화 남방불교 교류사업은 올해도 사무총장 지민스님을 단장으로 각 종단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 32명이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앙코르 유적지와 왓보사원, 왓트마이와 톤레삼호수, 파노라마박물관을 예방하고, 로터스월드아동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왓보 사원에서는 왕실고문스님인 핀셈스님을 뵈고, 좋은 말씀을 경청하였으며, 로터스월드에서는 선문스님을 뵈고 로터스월드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 종단협의회 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와 불교문화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체육대회이지만 캄보디아

에는 체육대회가 없어서, 아이들이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체육대회는 청팀 백팀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언어 장벽은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응원하고 열심히 함께 뛰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달라 알아듣지는 못해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쉬는 시간에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다 같이 신나게 춤을 추는데 저절로 흥이 났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나면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소중한 시간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로터스월드에서 만난 아이들과 새로운 경험은 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단음사 교도



- 매운쪽갈비 中 23,000 大30,000
- 간장갈비찜 中 23,000 大30,000
- 매운갈비찜 中 23,000 大30,000

배달시간 | 오후 5시 ~ 새벽 1시까지

부처님의 십대제자 지혜제일 사리푸트라 존자(3)

종교, 철학, 천문 등 열 살 이전에 습득한 소년학자

화령 정사(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1,250인의 아라한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열 분을 10대 제자라고 한다.

그 10대 제자 가운데에서도 사리푸트라(Sāriputra) 존자는 지혜가 가장 뛰어났다고 일컬어지는 분이다. 사리푸트라 존자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부처님 당시에는 1,250인의 아라한이 있었다고 한다. 이분들은 모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로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아라한이 된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이 혼탁한 세상에서는 아라한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큼 부처님의 법이 희미해 졌다고도 할 수 있고, 현대 사회가 수행을 해나가기에 그만큼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듯 수행처는 모두 관광지가 되어 있고 휴대폰, 인터넷 등이 생활화되어 출가 수행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사회가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아서 사회와 격리된 채로 수행에 몰두하여 아라한이 된다고 하여도 대사회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기 마련이다. 혼자서 법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깨달음을 회향하여 괴로움에 처한 많은 중생들을 건지는 데에는 그다지 역할을 못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생활불교가 되어야 한다. 재가와 출가를 나누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는 그다지 맞지 않다. 대승보살의 정신으로서 이 법계를 전부 수행도량으로 삼아서 현실이 곧 진리라는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세계를 빼놓고 어디에서 다시 불법을 구한다는 말인가? 지금의 불자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불법의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세상을 괴로움 없이 건너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1,250인의 아라한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열 분을 10대 제자라고 한다. 그 10대 제자 가운데에서도 사리푸트라(Sāriputra) 존자는 지혜가 가장 뛰어

났다고 일컬어지는 분이다. 사리푸트라 존자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사리푸트라라는 한자문화권에서는 사리불(舍利弗),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하는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할 때 나오는 사리자가 바로 이 사리푸트라 존자이다. 인도에서 백로의 한 종류 가운데에 '사리'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눈이 파랗고 빛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사리푸트라라는 어머니도 이 새처럼 파란 눈이 빛난다고 해서 사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리의 아들이라 해서 사리푸트라[사리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원래 아버지의 이름은 피사(일설에는 바간타라고도 함)라고 했

국왕도 논리 정연한 어린 사리푸트라에 감탄 유명 논사 외삼촌을 제도하여 부처님께 귀의

는데 사리푸트라라는 처음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우로피사라고 했지만 아들이 어머니의 눈을 닮아서 흔히 사리푸트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푸트라라는 눈도 틀림없이 파랗게 빛이 났을 것이다. 파랗게 빛나는 푸른 눈을 가진 사리푸트라가 지혜제일로 불렸다니 특이한 모습이 연상된다.

사리푸트라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하(왕사성) 근처 나라타라는 곳의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라타는 나중에 나란다 대학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곳이다. 사리푸트라라는 어머니도 원래 집안이 좋았는데 어머니인 사리의 친정아버지는 이름이 마타라라고 하는 유명한 논사(論師)였다. 마타라는 학문이 깊고 인품도 훌륭

하여 그 당시의 국왕이던 빔비사라왕이 그를 대우하여 좋은 곳에 땅을 하사하였고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때 남인도 지방의 이름난 논사 피사라는 젊은 이가 찾아와 마타라와 논쟁을 하여 이겼다. 왕이 마타라의 땅을 다시 피사에게 내리고 이러한 인연으로 피사는 마타라의 딸인 사리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나란다 대학으로 유명해진 그곳에서 아버지와 외가 쪽이 모두 논사인 훌륭한 집안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리푸트라이니 지혜제일이라는 인연은 이때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사리부인의 남동생, 즉 사리푸트라라는 외삼촌인 구치라도 유명한 논사였는데 누나가 사리푸트라를 임신했을 때에 "누님의 얘기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요."라고 예언을 했다고 한다. 구치라 외삼촌도 나중에는 사리푸트라에게 제도되어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사리푸트라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웅모도 훌륭했으며 어려서는 기억력이 좋아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했으며 바라문 집안에서 가르치는 종교, 철학, 천문 등 거의 모든 학문을 10세 이전에 이미 충분히 습득하여 소년학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뛰어난 총명에 더하여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 그런 칭송을 받는 것도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학문이든 예술이든 혹은 스포츠이든 선천적인 타고남이 있어야 최고의 경지



를 이루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가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표현되었듯이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노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전생의 업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것을 가르쳐도 훨씬 빨리 습득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전생의 업력이 토대가 되는 것 같다. 요즘은 DNA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한 소질을 익히는 것은 노력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봐야한다. 어지간한 것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최상의 경지까지 가는 것은 역시 타고

난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보다 그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을 미리 발견하여 그런 것들을 잘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리푸트라 존자 역시 타고난 종교적 성향에다가 좋은 교육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토대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철저한 구도 정신이 더해져서 최고의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언젠가 한번은 마가다국에서 길리라는 유명한 큰 부자 형제가 연회를 개최하여 국왕도 초빙하고 유명한 대신들과 왕자들도 초빙하여 한 쪽에서는 노래와 춤으로 흥겹게 놀고 한쪽에서는 논사들이 모여 토론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때

가장 높은 논사의 자리에 한 소년이의 것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국왕을 비롯한 대신, 브라만 논사들이 철없는 어린애가 저러고 앉아있나 보다 하고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논쟁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소년들은 이 아이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다 하는 쟁쟁한 논사들이 나섰으나 이 소년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소년이 다름 아닌 사리푸트라였다. 국왕도 사리푸트라라는 논리 정연한 논쟁에 감탄을 하고 별장을 상으로 내렸을 정도였다. 이처럼 사리푸트라라는 어릴 적부터 뛰어났으며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대단했던 것 같다.

일원어린이집 (Gilwon Children's Daycare) advertisement with address: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길 21 일원어린이집(일원동), phone: 02-552-1080~3, website: www.gncare.go.kr/gilwon. Includes a cartoon character and a speech bubble saying '꿈과 사랑이 가득한!'.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29)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④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쟁심(靜心)

『대일경』에서 중생의 60가지 마음 가운데 열세 번째로 설하고 있는 마음이 쟁심(靜心)이다. 쟁심(靜心)은 자기 마음 안에서 율고 그들을 다투는 마음이다. 앞에서 설했던 투심(瞋心)과 비슷하나 투심(瞋心)은 다른 사람과 율고 그들을 가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쟁심(靜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스스로 율고 그들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즉 투심은 타인과 관계가 있고, 쟁심은 자신의 문제다.

『대일경소』에서 쟁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른바 안으로 율고 그른 마음을 품고 스스로 하나의 뜻을 생각해내고서는 문득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어 다시 그 잘못을 가리거나 또는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자문을 받았더라도 다시 생각해서 득실을 따져 ‘이 일은 이래야 한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 이것이 다투는 마음임을 알아

야 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자기 마음속의 갈등을 말하는 것인데, 득실을 따지고 이해타산을 생각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중생의 마음이란 만생만멸(萬生萬滅)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번뇌를 일으킨다.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기를 거듭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쟁심이 가득하다.

이와 달리 자기 마음 안에서 율고 그들을 다투는 마음이 없는 것을 무쟁심(無靜心)이라 한다.

무쟁심(無靜心)

무쟁심은 율고 그들을 함께 버리는 것이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율고 그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고 그들을 고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다. 이 마음은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합당한 것이라면 고집을

버리고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다.

『대일경소』에서 무쟁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치에 합당한 것을 들으면 곧 이것을 받아 행하는 것이오, 혹은 먼저 옳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릇

‘합당한 것’에는 고집을 버리고 스스로 수정해야 진호국가불공은 천심을 뛰어넘는 대서원의 불공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곧 이것을 고치는 것이다. 정(情)에 집착하지 않으며, 율고 그들을 함께 버린다. 이와 같은 모습이 많으면, 이것을 자기 마음 안에 다툼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합당한 것이라면 자기 고집을 버리고 스스로 수정하는 마음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고집이 강하여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기 논리와 대의명분에 빠진 경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청(傾聽)과 자기반성

이 필요하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상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를 ‘마음에 대한 관찰(觀察)’, 다른 말로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즉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제법실

상(諸法實相)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다. 이를 지혜라고 한다. 따라서 지혜 있는 마음이 바로 무쟁심(無靜心)이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다툼이 없는 마음을 알아채고, 모든 법의 실상을 알아서 다툼이 없는 마음을 닦는 것이 쟁심을 다스리는 길이다.”

지혜를 닦아야 하는 이유다. 지혜를 밀교에서는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라고 부른다. 여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그 실상을 아는 것이 지혜다.

천심(天心)

그러나 중생은 높은 뜻보다 낮은 것에 더 큰 뜻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세간적 성취라고 말한다. 물론 밀교에서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중요시 하지만 낮은 차원의 개인의 서원성취도 방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방편을 무시하거나 등한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세간적 성취를 바라는 중생의 마음을 천심(天心)이라고 한다. 여기서 천심은 하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밀교에서 말하는 천심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즉 생천설(生天說)에 기인한 말이다. 고대로부터 인도에서는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생천사상이 만연해 있었다. 생천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었다. 이와 같이 소원성취를 바라는 중생의 마음을 천심(天心)이라 한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천심(天心)이라 하는가? 염원

에 따라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소원성취를 바라는 천심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천심은 중생의 마음인 것이 명확한 사실이지만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일경소』에서는 “진언을 수행하는 사람이 동글고 큰 과(果)를 기약하지 않고, 다만 자기 마음을 위해서만 끌어당긴다면 정보리심(淨菩提心)이 아니다. 세간의 성취를 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큰 서원 보다 개인적인 서원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개인의 서원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의 천심(天心)이지만 원대한 서원을 세우는 것은 천심(天心)을 뛰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서원을 세우더라도 더 큰 서원을 세우어야 할 필요가 있다.

7월 15일이면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을 마치게 된다. 이 불공이 바로 천심을 뛰어넘는 대서원의 불공이다. 율호야샤, 율호야샤, 율호야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쌍입차제

석가모니부다가 설한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일체의 존재방식과 해탈에 집중되었다. 훗날 불교교단과 관련된 율의나 문학, 문헌의 허구들은 불교교단이 인간 사회 가운데 생존하기 위한 분별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연기와 공성, 해탈열반은 불교가 지닌 가장 순수한 종교적 목적이자 인류가 가질 궁극적 명제일지 모른다. 『유마경』은 초기 반야경에 속하는 대승경전이다. 여기에는 미래 인류가 경험하게 될 우주적 지혜가 보이고, 인류 종교가 가진 의식적 가식과 허구마저 부

정하는 혁명을 보여주고 있다. 『유마경』에는 ‘불이법문품’이 있다. 유마거사가 불이의 진리에 드는 문을 32보 살에게 물었을 때 보살들은 생멸, 선악, 정예(淨穢), 세간과 출세간, 율회와 열반 등의 주제에 대해 상대적 이원성을 극복하는 공성을 설했다. 문수보살은, “아무런 말도 설하지 않고 설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이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수보살을 비롯한 대중의 요청에 의해 유마거사가 설한 불이법문은 침묵이었다. 유

마거사의 침묵으로 인도하는 인류최고의 지혜가 곧 용수보살의 중관사상에 나타나 있다. 특히 이제설에서 보이는 승의제와 세속제는 상대적 차별에 존재하는 공성의 절대세계를 보여준다. 구경차제 가운데 최후의 수행은 쌍입

미륵의 세계는 안락의 법을 성취한 종교적 세계 후기밀교, 모든 불교수행을 현실서 시험한 결과

차제(雙入次第)이다. 『오차제』에서는, “그는 환(幻)으로써 일체를 현중하고, 율회의 바다로부터 괴안에 도달하였다. 그는 소작과 능변(能變)의 대유가로서 이제(二諦)의 진리에 머물고, 진실지로서 무주처열반을 얻은 붓다이자 금강살타, 그리고 일체의 자제자이다”라고 하였다. 쌍입차제는 다른 수행차제와 달리 기술적 수행방법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21가지 ‘불이의 주제’가 제시되는데 생기차제를 더한 양차제가 추구해온 궁극의 경지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상대적 종교수행이 가질 차별성을 극복하고 생사와 열반의 구분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마거사의 절대침묵의 진실만이 남아

있다. 이를 열거하면 ① 율회와 열반 ② 번뇌와 멸도 ③ 유상(有相)과 무상(無相) ④ 능집과 소집 ⑤ 상(常)과 단(斷) ⑥ 지혜와 자비 ⑦ 방편과 지혜 ⑧ 유여 열반과 무여열반 ⑨ 인무아와 범무아 ⑩ 자가지와 광명 ⑪ 점관(漸觀)과 돈관(頓觀) ⑫ 속제와 승의제 ⑬ 진언행과 생기 ⑭ 잠과 각성 ⑮ 등지와 부등지(不等待) ⑯ 억념과 무억념 ⑰ 탐착과 무탐착 ⑱

소작과 능작 ⑲ 생기차제와 구경차제 ⑳ 청정과 비청정 ㉑ 유색과 무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연유에서 21가지 주제가 선정되었는지 필자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쌍입차제에 더 많은 주제를 포함시킨다면 분명 종교와 세속의 구분마저 넘어설 것이다. 미륵의 세계는 모두가 안락의 법을 성취한 종교적 세계이다. 종교나 수행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와 세속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마경』에 보이는 유마거사의 설법은 이에 대한 미래적 암시였을 것이다. 인도불교에서 미륵의 『현관장엄론』은 관념적 반야사상을 실천화한 현관차제를 설한다. 현교의 율가행과 밀교수행을 구분하는 경계는 인도의 스승들이 강조하듯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을 수족하고 타수용신으로 타수용도를 건립하는 일체지지의 성취이다. 늘 강조하듯 인도 후기밀교는 현두

교를 모사한 것이 아니다. 석존 이후 제기되었던 모든 불교수행을 인간의 현실에서 시험한 결과이고, 나란다대학의 나선 논리학에 무수한 시험을 거쳐 불교교단에 이입되었다.

인도후기밀교는 오백여 년 간 넘게 번성할 정도로 인도불교에서 성공하였다. 나란다대학에 존재했던 후기밀교 경전과 의례, 성취법들 대부분은 티벳불교에서 보존하고 있다. 티벳불교는 밀교 수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요긴한 것을 골라 실용성 높은 수행으로 보존, 전승한 불교수행의 또 다른 발전이다. 후기밀교를 포함한 수많은 밀교경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백분의 일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문헌들을 후대에 연구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저급한 종교적 미망을 조롱하고, 인류의 정신과 삶의 현실을 다룰 실용적 주제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수인사 교도

영일만소울푸드 협동조합

취급품목

음식을 잇다

행사음식, 관혼상제음식, 이바지음식

음식을 쪼다

홀데기식혜, 시금장, 개복치숙회, 오색나물 등 꾸러미식품, 문어숙회

기타 / 소울푸드 / 주문생산 / 전화 / 인터넷 / 단체 행사 도시락 택배 가능



동해중 인터뷰

오로지 참교육, 국어사랑의 외길 30년

오는 8월 29일 정년퇴임 맞는 탁상달 교장

반야차

탁상달

송학가루 어설피게 날리는 준비없이 맑은 날 거울에 비친 티끌 없는 힘겨움이 울타리 옆의 긴 대바람 소리로 다가오는 밀실 행렬 된 자리

인고의 세월을 훑고 나온 몇 안 되는 건초 무덤 눈꽃 속의 너 보드라운 그 자태는 무언의 가르침에 녹은 이슬 같은 땀방울이 어찌면 그렇게도 신비로운 맛 이 나.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은 교육자이자 시인이며, 문학자이다. 오는 8월 29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30년 교사 생활의 회향을 준비 중이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육자의 길에서도, 끝끝내 문학을 놓지 않고,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며, 오직 '국어사랑'의 길을 뚝뚝 걸어왔다.

2011년도 3월 교감에 부임할 때 이미 '국어선생'이라는 이름표를 댄지는 오래다. 하지만 탁교장의 남다른 '국어사랑' 열정은 일반 교사시절부터 시작되어 온

"환경이 달라져 이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학교도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리드하는 학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탁교장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생각의 근간으로 삼았다. 일찍이 불교에 입문하여, 청년시절부터 불교문학에 심취했던 탁교장은 교직원봉사회와 불교어머니회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전교직원의 75%가 불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교



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석사학위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학교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전교생 50%이상이 장학금을 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다음 오시는 분이 잘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이사 가는 사람은 청소하기 싫다던데, 탁교장은 퇴임 전 마무리 사업에 한창이다. 오래된 교사의 안전진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공사판을 벌였다. 퇴임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건 프로페셔널에게는 사치인 듯 해 보인다.

자작시를 한편 부탁했더니, '반야차'라는 시를 보냈다. 반야차는 맑은 산곡 푸른 이슬을 머금고 자란 어린 첫잎을 고운 정성으로 만든 잎차다. 반야는 불교에서 지혜다. 반야에 차를 더하니, 어찌 제 눈에 탁상달 교장선생님께서 선사하신가?

<인터뷰=박재원 기자>

교사, 학생, 학부모 함께 하는 교육 행정 전교생 50%이상이 장학금 받는 학교 꿈꿔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2004년도 제9회 독서대상에서 우수 독서교사에게 수여하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최근 독서 분야 부산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세 번 수상하는 쾌거도 있었다. 현재 17년 차에 접어들며, 회원 100명이 넘는 동해중학교 어머니 독서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된 학부모들도 있다.

"독서 지도는 의외로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읽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독서가 자신의 장애에 도움이 되는 감로수 같은 존재로 인식해야 성공한 독서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며, 일상 수업과 독서지도를 분리하지 않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머니회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교류와 소통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도 11월에는 동해중학교 교법당 동해사를 조성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수행공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재직 중에 맞이한 개교 50주년 사업을 통해, 기념 디지털 역사관과 연혁실을 만들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동해중의 5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최첨단 아카이브시스템이다. 본관 1층 법인실 옆에 마련된 연혁실에는 동해중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각종 전시물과 상장, 트로피, 교복 등이 전시돼 있다. '동해50년사' 출간, 학교, 교사 학생 동문을 하나로 잇는 역사를 만들기도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

종립 동해중 소식

넓은 건물 개보수, 50일간 대장정 돌입

안전성 확보, LED로 전면교체 학습환경 개선

동해중학교(교장: 탁상달)는 오는 2019년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50일간 대변혁의 공사에 매진한다.

현 교사는 1966년도 완공된 오래된 건축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 성능 및 정밀 점검 3종 시설물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4천 70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본관과 별관 건물의 조명시설이 모든 교실을 포함한 특별실 등이 오래된 형광등으로 설비되어 있어, 이를 전면 철거하고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1억 6천 4백 여 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천장 텍스도 석면텍스라 학생들

의 인체에 무해한 텍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금번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해체 공사비만 2억 4천 6백 여 만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내부 천장 낮춤 공사와 텍스 교체 공사 및 1층 교실 외부 창호공사로 3억 8천 8백 여 만원이 들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리코이앤씨 주식회사를

비롯한 12개 회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사이며, 7월 2일 석면해제 공사 설명회를 시작으로 첫 삽을 뜨게 된다. 금번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교육 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불교, 필환경시대 한국불교의 새 화두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은 우리 국민의 의미 작은 생활 습관과 행동의 변화가 가장 중요

'필(必)환경시대'가 도래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올해의 소비문화트렌드로 '필환경'을 꼽았다. 실제로 필환경적 소비는 세계 곳곳서 일어나는 '현상'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 '비거니즘'이다. 우선 '제로 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생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비거니즘'은 완벽한 채식이라는 '비건'을 넘어서 자연과 동물보호, 재활용 등 전반적 생활 습관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 현상인 '필환경'을 필두로 한 '제로 웨이스트'와 '비거니즘'은 바로 우리 불교와 맞닿아 있다. 불교는 과도한 소유를 경계하며 순환적 삶을 강조한다. 승가의 분소나 발우공양은 전통을 이를 잘 보여주는 문화중 하나이다.

불교환경연대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생활 발굴 및 협약 △환경법회 및 교육 △버드나무 방법회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다이어트 △사찰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 파이팅'에 주목한 환경 감시자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대안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때 '불교가 곧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동행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대중화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부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의 전문성처럼 여겨지는가 하면, 강한 투사의 개념으로 비춰져 큰 공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번 불교환경연대의 '녹색불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된다. 녹색불교는 바야흐로 이제 한국불교의 새로운 화두가 됐다. '녹색불교 만들기'는 '종단·사찰·불자의 녹색화'라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에 따르면, 한국이 인도,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조사됐다. OECD 35개 회원국만 보면 최악의 수치다. 오염된 환경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있어 매일 아침 일기예보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습관은 일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인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 1위로 대기오염을 꼽았으며, 이로 인해 매년 7백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은 비단 미세먼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 재해는 우리 삶의 터전을 뒤흔든다. 이처럼 환경 문제가 인류 생존을 위한 과제이자 인권 문제로 떠오른 지금,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서 규정하는 환경권이란 한마디로 깨끗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한다. 개인의 노력 없이 우리 삶의 질은 결코 높아질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 또한 보장 받을 수 없다.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작은 생활습관서부터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필환경시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인 것 같다.

<김주일=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Amount, Date, and Total.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Buddhist Welfare Foundation.

절기이야기 불별, 짐통,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

정각사 남혜 정사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끊임없는 무더위로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7월,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이 시기를 옛 사람들은 대서라 불렀다. 대서는 24절기 중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이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 사이에 있는 대서는 큰 더위라는 의미에 걸맞게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양력으로 7월 23일이다. 여름 중에서도 무더운 날씨가 불별더위, 짐통더위라고 부른다. 대서가 바로 이때에 해당하며 중북 무렵으로 많은 사람들은 삼복더위를 피해 산과 계곡,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중국의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에 계절의 변화와 인간의 삶에 대해 언급된 이래,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 원나라의 『수시력』 등 여러 문헌에 대서 기간을 5일 단위로 3후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대서의 초후에는 썩은 풀에서 곤충이 자라고, 중후에는 흙이 습해지며 날씨가 더워지고, 말후에는 큰 비가 때때로 내린다고 한다. 대서에는 "대서 더위에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더위가 심한 시기이다. 『중종실록』에는 "강독(講讀)은 다 3일에 한 차례 하나, 한추위, 한더위라면 3일을 넘기더라도 무방합니다." 라고 아벌 정도로 궁궐에서도 대서의 여

름은 무더웠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서를 맞아 황제가 신하에게 얼음을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얼음은 겨울에 채취하여 빙고에 저장했던 것을 꺼낸 것으로, 베이징에 여러 곳의 빙고에 있었다. 또한 대서를 전후하여 민간에서는 햇볕에 옷을 말리고, 사찰에서는 경서를 꺼내어 습기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 무렵 농촌은 논밭의 잡초를 뽑고 풀과 짚을 섞어 퇴비를 만드는 등 농작물 관리에 숨 돌릴 틈이 없다. 이 무렵은 참외, 수박, 채소 등이 풍부하고 햇빛과 보리를 먹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충분한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이라는 조건에서 최적의 당도가 만들어져 대서의 날씨는 과일 생산에 적합하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강한 햇빛이나 높은 기온으로 인해 몸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에 있는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이렇게 신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졸음, 피로,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을 느끼고, 입맛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먹어야 한다. 삼계탕 등 보양식도 좋지만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제철 과일을 먹음으로써 부족한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좋다.

내 마음의 등불 4

수계사 현일 정사편

남의 소만 세는 목자(牧者)처럼

비록 많은 경전을 외우면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자일 뿐 종교인은 못 된다. 비록 경전은 조금 외웠더라도 법대로 도를 행하여 탐욕과 미움과 무지를 버리고 누구와도 대립이 없이 바르게 깨쳐서 마음이 편안하면 이것이 종교인이다.

-법구경(法句經), 불교총론 298p-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수계사 현일 정사님은 다음 주자로 단음사 주고 수현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와 드라마

소통과 공감, 그리고 위로에 관한 이야기

나의 아저씨

tvN에서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김원석 연출, 박해영 극본)는 유난히 안티가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45세 남자와 21세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상상력을 풀리 타겟플렉스 쪽으로 몰아갔고, 패미니스트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에게서 화염과 같은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드라마는 로맨스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위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칠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소녀가 이해심 많고 따뜻한 어른을 만나 인간적인 공감을 이루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지금을 살아가는 20대와 기성세대가 처한 녹록치 않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드라마적 요소를 통해 공감과 판타지를 적당하게 아우른 드라마였습니다.

아저씨 박동훈(이선균)은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이긴 하지만 대학 후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변호사인 부인은 바람을 피우고 집이라고 들어와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사람 없고, 회사에 나가도 잘나가는 후배의 그늘에 가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잘나가는 후배에게 치이고, 집에서 외롭고, 그 반자리를 조기 축구회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채우지만 가슴 속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박동훈의 처지를 사형선고를 받은 무기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안(이지은)은 이런 박동훈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5백에서 6백을 벌면서 왜 저런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긴 사채 빚에 시달리는 이지안은 낮에는 회사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밤이면 뷔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늦은 시간 귀가해 쓰러지듯 잠드는 게 일상이지만 그녀가 버는 돈은 모두 사채를 갚는 데 들어가고 뷔페에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싸와서 끼니를 때우는 그녀에게 미래 또한 암담하기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요양병원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친구와 같은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낮에는 20대인 듯하고, 밤에는 40대인 듯하고, 낮에는 이광일(장기용)이 있을 뿐입니다. 믹스커피 두 봉지를 뜯어 마시는데 그것

이 유일한 위안일 뿐인 삭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처지입니다. 박동훈의 불행이 주관적이라면 이지안의 불행은 객관적 불행입니다. 자그맣고 우울한 삶을 살던 박동훈이 이지안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우울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지안의 불행이 박동훈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지안을 이해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동료 중 한 사람이 싸가지 없는 이지안을 자르자고 하자 "너희는 개 안 불쌍하나?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하다.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개의 지난날을 알기가 겁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이지안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녀가 고분고분한 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걸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박동훈은 자신을 배제하고 그녀

를 봤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고단한 삶과 외로움이 보인 것이고 그래서 연민을 가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고 소모하는데 반해 박동훈은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한 줄 아는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박동훈의 이런 인간성을 알게 된 이



지만 또한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박동훈의 안부를 전하면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하면서 울먹입니다. 이지안의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박동훈은 이지안에게 세상은 따뜻한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이지안이 경직된 얼굴을 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드라마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알비를 전하며 살아가지만 미래 같은 건 기대할 수 없는 20대의 애환.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위태롭고 사회에서도 곧 도태될 것 같은 40대의 외로움과 불안. 그런데 이 드라마가 어둡지만 않은 것은 이런 암울한 환경에서도 가족을 살릴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역시 가난한 친구들이 있고,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마냥 어둡게만 여겨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는 우리 사회에서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면서도 사람 사이의 연대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맛찬들 3.5
SINCE 2008
왕소금구이



맛찬들 3.5 노원점 왕소금구이



예약전화 02-938-7008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68-9

영업시간 11:00 - 01:00

부산경남교구 합동 교구회의, 지회장 이취임식 개최

신임 류길자 지회장,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할 것



▲ 왼쪽부터 허태연 부회장, 류길자 회장, 정인화 전수, 이지은 부회장, 신혜영 총무

부산경남교구 합동 교구회의 및 지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6월 13일 부산 정각사에서 진행되었다. 부산경남 교구 합동 교구회의에 앞서 봉행된 지회장 이취임식은 오후 12시부터 서원당에서 실시되었다.

정인화 교구장을 비롯한 스승 20여명과 신임 류길자 지회장과 함께 교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취임식은 남해정사의 집공으로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은 정인화 교구장의 인사말과 지회장 취임 발원문, 취임사 그리고 신임 지회 간부들에 대한 꽃다발 증정이 이루어졌다. 정인화 교구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을 위해 늘 물심양면으로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 또 새로운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애써 주기를 바란다.”고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새로 취임한 류길자 회장도 발원문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참회하오니, 배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퇴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하옵나니,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며 새 회장으로서의 각오와 의지를 나타냈다.

신임 지회장단은 류길자 지회장(정각사), 허태연 부회장(성화사 회장), 이지은 부회장(자석사 회장), 조향선 총무(정각사), 신혜영 총무(법성사 총무)로 구성되었다. 신임 지회장 취임식을 마치고 진행된 합동교구회의에서는 남해정사의 사회로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을 마치고 봉행하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BOOK 소리 목적지 없이 길을 걷다, 삶의 목적을 만나다.



미안마 여행 에세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박원진(글·사진) 도서출판 오르골 14,800원

30대 저자가 미안마를 여행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영화감독을 꿈꾸다가 포기한 뒤 ‘실패한 영화인’이라 자책하던 저자는 미안마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풍경을 접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배워간다. 편지 형식의 에세이 30편과 저자 특유의 감성이 돋보이는 80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지글은 마치 친한 친구가 말을 건네듯 다정하고, 사진들은 실재로 현장을 거니는 느낌이 들 만큼 생생하다. 불교의 나라 미안마에서는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데, 저자는 이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내가 밟 딛고 살아온 세상에서 살짝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낯선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 또 일상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는지. 이 책은 사진 찍기 좋은 곳, 맛집 정보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과는 다르다. 저자의 시선이 유명 관광지보다는 그것을 배경삼아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평범한 삶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여행에 관심 있는 이들뿐 아니라 ‘살’이란 여정에서 길 잃고 헤매는(또는 헤맸던)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방토 정토 저녁이 올 때

내가 들어서는 여기는 옛 석굴의 내부 같아요

나는 희미해져요 나는 사라져요

나는 풀벌레 무리 속에 나는 모래알, 잎새 나는 이제 구름, 애가(哀歌), 빗방울

산 그림자가 물가의 물처럼 움직여요

나무의 한 가지 한 가지에 새들이 앉아 있어요 새들은 나뭇가지를 서로 바꿔가며 날아 앉아요

새들이 날아가도록 허공은 왼쪽을 크게 비워놓았어요

모두가 흐르는 물의 일부가 된 것처럼 서쪽 하늘로 가는 뚝배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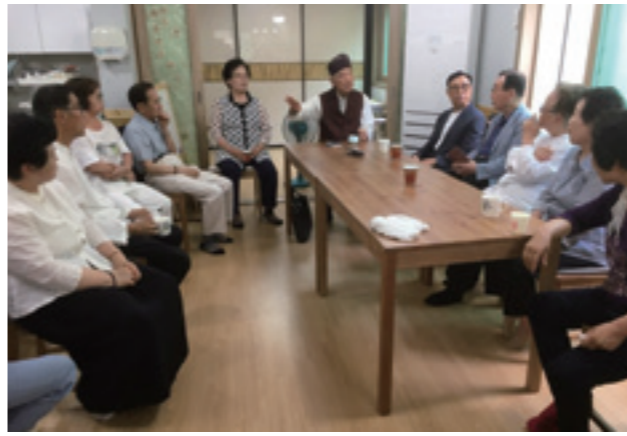
‘시와시학’(2019, 여름호), 제31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작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으로 시 등단. 시집 『수련거리의 뒤란』 『맨발』 『가재미』 『그들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 등. 고려대 국문과 졸업 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현 BBS ‘음악이 흐르는 풍경’ PD 재직 중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대전 만보사, 종령님 설법 후 환담



대전 만보사(주교:안성 정사)에 지난 6월 9일 자성일에 종령님께서 오셔서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만보사와의 인연으로부터 하반기 49일 불공인 진호국가불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령님께서도 만보사의 단월회와 합창단이 다시 부활하길 서원하셨습니다. 불공 후에는 교도들과의 환담 시간을 갖고, 만보사 교도들이 49일 마지막 날까지 모두 원만하게 4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묵은 빛을 갚는 불공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만보사=정덕순 통신원>

정각사 산악회, 양산 배내골 계곡 관불



정각사(주교:도현 정사) 산악회는 지난 6월 10일 안한수 회장을 비롯 회원들과 양산 배내골 계곡 및 울주 파래소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배내골은 영남알프스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있지만, 고갯길을 넘어 산으로 둘러싸인 배내골에 닿으면,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평화로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초여름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회원님들과 함께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각사=박선녀 통신원>

법황사, 신정회 간부 취임식 개최



▲ 왼쪽부터 범우 정사, 심수정 교도, 강길자 회장, 이우조 부회장, 정해심 총무, 서복남 총무, 인지심 전수

충청전라교구 법황사(주교:범우 정사) 신정회 간부 취임식이 지난 6월 9일(월초불공 회향일)에 서원당에서 봉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식이었던 신정회장에 강길자(도선행)보살님이 선임되었고, 부회장에 이우조 보살님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금강행 부회장과 서복남 총무, 정광인 감사는 유임되었으며, 전 신정회장이었던 심수정 보살님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첫 신정회 간부회의를 주교 범우 정사님이 주재하고, 매달 월초회향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법황사 교화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신정회장에 취임한 강길자(도선행)보살님은 “보살님들이 서로 잘 화합하고 부진한 법황사 교화발전을 위해서 미려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태겠습니다.”는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임명된 신정회 간부의 임기는 3년입니다.

<법황사=서복남 통신원>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총지사 교도

U 20 월드컵
준우승
그때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던 시간



제6회 청소년 바른 인성 형성 프로그램

2019.7.29 - 31 (2박3일)

용인 에버랜드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대상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 내용 | 여행후기발표, 인성강의, 문화체험
- 개별 참가문의

각사원주교 및 행사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2019년 7월 완공예정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군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
(초량지구대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1분거리, 대형마트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LG휘센스마트천장형에어컨
친환경동화자연마루시공
실크벽지
불박이장
LG공기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파트 | 23세대 (2Type)

오피스텔 | 34호 (3Type)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문의 051-468-7164